

## '역주행 신화' 브레이브걸스,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가 14일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한국관광을 해외에 알리는 명예홍보대사를 맡았다. 브레이브걸스가 출연하는 한국관광 홍보 캠페인은 동남아 MZ세대 맞춤형 '너의 한국관광 경험 레벨을 올려봐'라는 주제로 만들었다. 12일부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5개의 테마(속도, 한계, 셀프사진, 시간여행, 스타일)로 한국 지역관광을 중점 소개한다.



방어진 도로교통공단 홍보처장, 라신희 도로교통공단 강남면허시험 단장,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 구자범 오비맥주 부사장(왼쪽부터)이 캠페인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오비맥주

## 국내 최대 건설기계업체 탄생

#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품고 새 도약

경쟁 제한 우려 없어...기업결합 승인 권오갑 회장·조영철 사장 공동 대표 건설기계, 핵심 사업으로 집중 육성 두산그룹 재무구조 정상화 마무리



권오갑 회장 조영철 사장

## 현대중공업

건설기계부문 중간지주사인 현대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고, 국내 최대 건설기계업체로 새출발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KDB인베스트먼트(KDBI)와 인수금융 등을 통해 19일 인수대금을 완납하고 지분 양수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딜(deal)이 마무리되면 현대중공업은 건설기계 분야 국내 1, 2위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를 품은 국가대표 기업으로 탄생하게 된다.

### ●2025년까지 글로벌 TOP5 오를 것

현대중공업지주와 KDBI 컨소시엄은 지난 2월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4%를 8500억원 가량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두산중공업과 체결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9일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건설기계 지분 33.1%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고 현대중공업 지분을 확보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공정위 승인을 통해 국내를 포함 러시아, 중국, 베트남, 터키 등 5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자, 7월 26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와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사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업계에서는 그룹을 이끄는 권오갑 회장이 직접 현대중공업의 공동대표를 맡은 것은 건설기계를 조선, 에너지사업과 함께 그룹의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권오갑 회장은 2010년 현대오일뱅크 초대 사장을 거쳐 2014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및 그룹 기획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현대중공업지주와 한국조선해양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권오갑 회장이 현대중공업의 공동대표를 맡은 것은 앞으로 건설기계 사업을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의 경영을 이끌어갈 조영철 신임 대표는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감으로써, 건설기계 부분이 현대중공업그룹의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2025년까지 세계시장점유율 5% 이상을 달성해 글로벌 톱5 자리에 오르겠다"고 밝혔다.

조영철 대표는 1961년생으로 현대중공업 재정담당, 현대오일뱅크 경영부

부장, 현대중공업 재정본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현대중공업그룹 CFO 겸 한국조선해양 경영지원실장을 맡고 있다.

### ●두산그룹, 긴급자금 3조 원 연내 상환 가능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이 완결되면서 두산그룹의 재무구조 정상화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에서 촉발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3년 만기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국책은행으로부터 3조 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아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5월 클럽모우CC를 1850억 원에 매각했으며, 두산타워 매각(8000억 원), 두산솔루션 매각(7000억 원)과 주주배정 유상증자(1조 2125억 원)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했다. 여기에 8500억 원의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자금을 더하면 긴급자금 3조 원을 연내 상환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상대로 상황이 완료되면 두산그룹은 대기업 구조조정 사상 최단기간인 1년 6개월여 만에 채권단 관리체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오비맥주 '음주운전 안 하기 약속 캠페인' 실시

오비맥주와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서울 강남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안 하기' 특색 있는 약속 캠페인을 실시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서약 캠페인이다. 이제 막 운전면허를 취득한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려 올바른 운전습관을 심어 주기 위해 기획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으로 음주운전 사고 현황과 예방법 등을 살펴본 후 음주운전 가상체험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했다. 온라인 서약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의지도 다졌다.

배하준(본명 배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는 "운전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시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안전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주류업계 선도기업으로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강원랜드 직원 확진 발생...18일까지 카지노 휴장

강원랜드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카지노 영업을 중단한다. 강원랜드는 15일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16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전 6시까지 이틀간 카지노 임시 휴장을 결정했다. 강원랜드는 12일 정선의 한 주택에서 시작된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12일부터 현재까지 직원 1300여 명에게 검사를 진행한 결과 워터월드 수상안전요원 10명과 식음·카지노 부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강원랜드의 물놀이 시설과 식음업장은 이미 13일부터 휴장에 들어갔다.

##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 여름 불청객 요로결석...신속한 치료 중요

요로결석은 7~9월 여름철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 소변이 생성되는 신장에서 요관, 방광, 요도까지의 부분에 결석이 생기는 질환이다. 소변은 미네랄과 염분을 많이 함유해 농도가 올라가면 염류가 들쳐앉 딱딱해지는 결석이 생성된다. 땀의 배출이 많아지는 여름에는 소변이 농축되기 쉬워 요석이 잘 발생한다.

신장 안에 발생한 결석은 증상이 거의 없어 무연히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요관으로 이동한 요관 결석은 소변의 이동을 방해해 신장이 부어오르는 수신증을 유발하고 극심한 통증을 야기한다.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이 오래 지속되며 남성은 하복부와 고환, 음낭 쪽으로 통증이 뻗어나갈 수도 있다.

구토와 같은 소화기계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결석이 방광에 생성된 경우에는 혈뇨, 빈뇨, 잔뇨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요관에 낀 결석을 밀어내려는 연동운동으로 호흡이 힘들 정도의 강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요로감염이나 수신증, 신부전 등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자연 배출이 어렵고 약물 치료만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통해 결석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체외에서 결석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 작은 가루로 부서어 자연적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주변이 장이나 피부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당일 일상 복귀가 가능할 정도로 간단해 바쁜 직장인들에게 적합하다.

요로결석은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치료 이후에도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생활습관을 바꾸고 약물 복용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림 서울비뇨기과 관악점 **전찬후**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 '갤럭시폴드3·플립3' 사전예약 오픈...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 잡아라"

23일까지 사전예약...27일 공식 출시 중고폰 보상·제휴카드 할인 등 진행

삼성전자가 '갤럭시폴드3'와 '갤럭시Z 플립3'의 사전예약을 17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공식 출시는 27일이다. 사전 예약은 전국 디지털프라자와 이동통신사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몰, 네이버와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약 고객은 24일부터 제품을 수령해 개통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사전 예약 후 27일까지 개통을 마친 고객을 대상으로 다

양한 혜택을 준다. 사전 예약 고객 모두에게 무선 이어폰 '갤럭시버즈2', 모바일 기기 토털 케어 서비스 '삼성케어플러스' 파손보장형 1년권을 제공한다. 갤럭시Z 폴드3 사전 예약 고객에는 전면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고 S펜도 보관할 수 있는 '플립커버 with S펜'도 준다.

삼성전자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중고폰 추가 보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갤럭시Z 폴드3와 갤럭시Z 플립3를 구매하고 기존 폰 반납 시 중고 시세에서 추가 보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해 출시된 '갤럭시Z 폴드2'를

반납하면 중고 시세를 포함해 최대 110만 원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도 5G 가입자 확대를 위한 경쟁에 나섰다. 제휴카드 할인과 경품 행사는 물론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SK 텔레콤은 구독 상품과 연계한 프로모션과 카카오톡프예약 등 인기 브랜드와의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KT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을 최대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상급결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기가인터넷(500M 이상)을 사용하면 모바일 월정액의 최대 50% 할인을 받는다. LG 유플러스는 강남 복합문화공간 '일상비밀



1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갤럭시폴드3를 체험할 수 있는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 사진제공 | 삼성전자

상'에서 내달 8일까지 체험 팝업을 운영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현대자동차 월드랠리팀, 2021 WRC 벨기에 랠리 우승

벨기에 랠리 초대 우승 제조사 기록 남겨 선두 토요타와 41점 차이로 추격 시동

현대자동차가 WRC를 올해 처음 개최한 벨기에 랠리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현대자동차는 13~15일 벨기에 서부 이프르에서 개최된 '2021 월드랠리챔피언십(WRC)' 시즌 여덟 번째 대회인 벨기에 랠리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동시에 차지하며 더블 포디움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 월드랠리팀은 이번 대회에 티에리 누빌과 크레이그 브린, 오토 타낙 등 3명의 선수가 'i20 Coupe WRC' 경주차로 출전했다.

벨기에는 올해 WRC 일정에 처음 포함됐으며, WRC를 개최한 35번째 국가다. WRC가 처음 열리는 국가인 만큼 과거 주행 데이터가 없어 선수들은 랠리카의 성능을 바탕으로 대등한 조건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다.

티에리 누빌은 세 번째 스테이지부터 일곱 번째 스테

이지까지 연달아 우승하면서 단숨에 선두에 올랐다. 이후 경기 중 단 한차례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주행으로 팀 동료 크레이그 브린을 30.7초 차이로 앞서면서 WRC 2차전 핀란드 북극 랠리에 이어 현대팀에게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선물했다.

이번 우승으로 상반기 부진을 털어낸 현대팀(307점)은 벨기에 랠리서 총 51점을 얻어내며 선두 토요타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제조사 부문 챔피언십 순위에서 토요타(348점)와 점수차는 41점이다. WRC는 올해 총 12차전 중 8차전까지 소화했으며, 남은 4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챔피언 향방이 결정된다. 2021 WRC 9차전은 9월 9일부터 그리스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2021 월드랠리챔피언십' 8차 대회 우승을 확정된 뒤 승리의 포즈를 취한 현대팀 드라이버 티에리 누빌(왼쪽 다섯번째)과 코드라이버 마틴 비데거(왼쪽 네 번째·위 사진), 월드랠리챔피언십 8차 대회 벨기에 랠리 코스를 질주하는 현대 'i20 Coupe WRC' 랠리카.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